

# 춘추 전국 시대와 제자백가

## 중2 역사1 · 대치동 재우쌤

주 왕실의 힘이 약해지자 여러 나라가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전쟁과 사회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혼란을 끝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방법을 찾았어요.

### 이 단원의 질문

- Q01** '춘추'와 '전국'은 두 나라의 이름인가요?
- Q02** 주나라 왕이 있었는데, 제후들은 왜 서로 싸웠나요?
- Q03**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는 무엇이 달랐나요?
- Q04** 철제 무기가 생겨서 전쟁의 규모가 커진 건가요?
- Q05** 철제 농기구와 우경은 농사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 Q06** 곡식이 많이 생산되면 왜 상업과 도시도 발달하나요?
- Q07** 군주들이 원했던 '부국강병'은 무슨 뜻인가요?
- Q08** 높은 귀족 집안 출신이 아니어도 관리가 될 수 있었나요?
- Q09** 제자백가는 정확히 백 명의 사상가를 말하나요?
- Q10** 전쟁이 많은데 군주들은 왜 사상가들의 말을 들었나요?
- Q11** 공자가 말한 인과 예는 그냥 착하고 예의 바르게 살라는 뜻인가요?
- Q12** 맹자의 '성선설'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 Q13** 묵자의 겸애와 비공은 무슨 뜻인가요?
- Q14** 도가의 무위자연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 Q15** 법가는 백성을 벌주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나요?
- Q16** 유가와 법가는 모두 질서를 원했는데 무엇이 달랐나요?
- Q17** 제자백가는 모두 부국강병만을 목표로 삼았나요?
- Q18** 춘추 전국 시대는 어떻게 끝났나요?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이 단원의 질문

### Q01 ‘춘추’와 ‘전국’은 두 나라의 이름인가요?

**답**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경쟁하던 긴 시기를 앞의 춘추 시대와 뒤의 전국 시대로 나누어 부르는 말이에요.

주나라는 중국 황허강 일대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왕조예요. 진나라는 주나라의 서쪽 지역에서 성장한 제후국으로, 뒤에 전국 시대의 일곱 강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제후국은 주나라 왕에게 지역을 맡은 지배자가 다스리던 나라를 말해요.

보통 기원전 770년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때부터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요. 약 550년 동안 이어진 긴 시기예요.

‘춘추’는 주나라의 제후국 가운데 하나였던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춘추』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전국’은 ‘싸우는 나라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전국에 비가 온다’고 할 때처럼 나라 전체를 뜻하는 말과는 달라요.

앞의 춘추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뒤의 전국 시대에는 강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땅과 백성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어요.

### Q02 주나라 왕이 있었는데, 제후들은 왜 서로 싸웠나요?

**답** 주 왕실이 제후들을 통제할 힘을 잃어 가자, 제후들이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경쟁했기 때문이에요.

주나라는 왕의 친족이나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지역을 나누어 맡겼어요. 이렇게 지역을 다스리던 지배자가 **제후**예요. 제후는 왕을 받들고, 필요할 때 군사를 보내 왕을 도와야 했어요. 이러한 지배 방식을 주나라의 **봉건제**라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후들은 자기 지역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웠어요. 반대로 주 왕실의 힘은 약해졌어요. 외부 세력의 침입과 왕실의 혼란을 겪은 뒤에는 수도도 동쪽으로 옮겼어요.

왕이 명령해도 제후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 명령을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워요. 주 왕실이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강한 제후들을 누를 힘이 부족해진 거예요. 제후들은 왕의 명령보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며 서로 다투었어요.

### Q03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는 무엇이 달랐나요?

**답** 춘추 시대에는 주 왕실의 권위를 내세운 강한 제후들이 세력을 겨루었고, 전국 시대에는 강국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어요.

주 왕실의 **권위**는 다른 사람들이 주 왕실을 높이 인정하고 따르게 하는 힘이에요. 춘추 시대의 강한 제후는 ‘주나라 왕을 받든다’는 **명분**, 곧 자기 행동이 옳다고 내세우는 이유를 앞세워 다른 제후들을 이끌기도 했어요. 이처럼 여러 제후를 이끌던 강자를 **패자**라고 해요. 교과서의 ‘춘추 5패’는 대표적인 패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국 시대에는 여러 작은 나라가 사라지고 일곱 강국이 두드러졌어요. 이들을 **전국 7웅**이라고 해요. 강국의 군주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며 다른 나라를 정복해 영토를 넓히려 했어요.

주나라를 중심으로 한 옛 질서에서 ‘왕’은 주나라 임금의 칭호였고, 제후는 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후들이 자신도 왕이라고 부른 것은 주나라 왕보다 낮은 지배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나라의 지배자라는 뜻을 드러낸 거예요.

두 시기의 차이는 전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에요. 주 왕실을 중심으로 한 옛 질서가 점점 약해지고, 강한 나라들이 서로를 정복하려는 경쟁이 커졌다는 데 있어요.

### Q04 철제 무기가 생겨서 전쟁의 규모가 커진 건가요?

**답** 철제 무기의 사용도 관련이 있지만, 더 많은 병사를 동원하고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변화도 함께 작용했어요.

이 시기에는 철을 이용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철제 무기도 점차 쓰였어요. 그렇다고 청동 무기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청동 무기와 철제 무기가 함께 사용되었어요.

전쟁에서는 수레를 타고 싸우는 귀족뿐 아니라 걸어서 싸우는 많은 병사, 곧 **보병**의 역할도 커졌어요. 나라들은 많은 백성을 군사로 동원했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전쟁을 벌였어요.

큰 군대를 움직이려면 무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병사들이 먹을 곡식과 물자를 모으고, 사람들을 조직할 힘도 필요해요. 농업의 발전과 나라의 동원 능력이 전쟁의 확대를 뒷받침한 거예요. 철기는 전쟁터뿐 아니라 농사짓는 곳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 Q05 철제 농기구와 우경은 농사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답** 단단한 땅을 일구기 쉬워졌고, 소의 힘을 이용해 더 넓은 땅에서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땅을 파고 뒤집어 씨앗이 자랄 수 있게 해야 해요. 그전에는 나무나 돌로 만든 농기구를 많이 썼어요. 나무로만 만든 날보다 단단한 쇠 날을 붙이면 딱딱한 흙을 파고들기 쉬웠어요. 힘을 주어 땅을 팔 때 도구의 끝이 쉽게 닳는 것도 줄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철제 농기구**는 도구 전체가 쇠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몸체에 쇠 날을 붙인 쟁기도 철제 농구에 들어가요.

**우경**은 소의 힘으로 쟁기를 끌어 땅을 가는 농사 방법이에요. 사람이 힘만으로 땅을 일구는 것보다 넓은 땅을 갈 수 있었어요. 농사지을 땅을 새로 일구는 것을 **개간**이라고 해요. 철제 농기구와 소의 힘을 이용해 새 땅을 개간하는 일도 늘었어요.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점차 퍼지고, 논밭에 물을 대는 시설도 마련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어요. 모든 지역이 동시에 바뀐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할 바탕이 넓어진 거예요.



### 소의 힘으로 땅을 가는 우경 — 상상도

왼쪽의 소 한 마리가 목에 멘 멍에와 나무 막대를 통해 쟁기를 끌고, 오른쪽 농부가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땅에 닿는 쟁기 끝에는 짙은 회색의 쇠 날이 씌워져 있어요. 오른쪽 아래 둥근 확대 그림은 같은 부분을 크게 보여 줘요. 갈색 나무 몸체와 그 끝을 감싼 쇠 날을 구별할 수 있어요.

## Q06 곡식이 많이 생산되면 왜 상업과 도시도 발달하나요?

**답** 먹고 남는 곡식을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고, 농사 이외의 일을 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산한 곡식을 모두 먹어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바꾸기 어려워요. 그런데 필요한 양보다 더 생산하면 남는 몫이 생겨요. 이렇게 생산하고 남은 몫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해요.

농민은 남는 곡식으로 농기구나 옷감을 구할 수 있어요. 농기구를 만드는 장인은 그 곡식을 얻어 먹고살 수 있죠. 물건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 파는 상인의 활동도 활발해져요. 물건을 주고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장과 도시가 발달하고, 거래에 쓰는 화폐도 널리 사용되었어요.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큰 재산을 모은 상인 같은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어요. 농사의 변화가 농민의 생활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일과 재산, 도시의 모습까지 바꾼 거예요.

## Q07 군주들이 원했던 ‘부국강병’은 무슨 뜻인가요?

**답**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주변 나라가 군대를 키우는데 자기 나라만 약하면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군주는 **부국강병**을 이루려고 했어요. 농업을 장려해 곡식을 늘리고, 세금과 병사를 확보하는 제도를 정비했어요.

군주들은 귀족에게만 지방을 맡겨 두기보다 자신이 임명한 관리를 보내 백성과 땅을 직접 다스리려 했어요. 나라의 중요한 결정과 힘을 중앙의 군주에게 모으는 **중앙 집권**이 강화된 거예요.

나라의 재산과 군대가 커지는 것이 모든 백성의 생활이 편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농사를 짓다가 군대로 끌려가거나, 세금과 나라 일을 위한 노동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과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언제나 같지는 않았어요.

## Q08 높은 귀족 집안 출신이 아니어도 관리가 될 수 있었나요?

**답** 네. 가문뿐 아니라 실제 능력을 인정받아 등용될 기회가 늘어났어요.

**등용**은 어떤 일을 맡길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이에요. 나라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군주들은 싸움을 잘 지휘하거나, 세금과 물자를 관리하거나, 다른 나라와 협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집안이 훌륭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맡겼다가 경쟁에서 지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문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커졌고, 지식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며 자기 생각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신분 차이가 사라져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귀족의 힘과 가문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과거제가 이때 시행된 것도 아니에요.

### Q09 제자백가는 정확히 백 명의 사상가를 말하나요?

**답** 아니에요. 여러 사상가와 그들이 이론 다양한 학파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제자**는 여러 사상가를, **백가**는 많은 학파를 뜻해요. 여기서 ‘백’은 정확히 100개를 세었다는 뜻보다 수가 많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학파**는 비슷한 생각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갈래예요.

여기에는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유가, 묵자의 묵가,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 상앙과 한비(한비자) 등이 대표하는 법가가 있어요. 상앙은 진나라에서 법가 사상에 따라 개혁을 이끈 정치가이고, 한비는 법가 사상을 정리한 사상가예요. 이들 외에도 여러 사상가와 학파가 있었어요.

제자백가를 한낱한시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시기에 활동한 사상가들도 있어요. 긴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 사상과 학파가 나타나고 발전한 것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 Q10 전쟁이 많은데 군주들은 왜 사상가들의 말을 들었나요?

**답** 사상가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기 때문이에요.

사상은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생각이예요. 당시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옛 질서가 흔들렸어요. 사상가들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어떻게 다스려야 백성이 편안해질까?’를 고민했어요.

군주에게도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군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고 나라를 안정시킬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사상가나 유능한 인재를 불러 조언을 듣고 일을 맡기기도 했어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활동을 돕는 **후원**도 했어요. 이런 후원과 인재 등용은 다양한 사상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다만 군주가 원하는 답과 사상가가 옳다고 생각한 답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어요. 정복 전쟁을 줄이거나 군주의 욕심을 버리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제자백가가 모두 군사력을 키우자고 한 것은 아니에요.



### 인재의 조언을 듣는 군주 — 상상도

왼쪽 방문자가 손짓하며 말하고 있어요. 파란 옷을 입고 검은 관을 쓴 가운데 오른쪽의 인물이 군주예요. 군주와 주변 사람들이 방문자의 말을 듣고 있어요. 낮은 탁자에는 글을 적던 대나무 조각 묶음인 죽간이 놓여 있어요. 나라를 다스릴 생각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군주에게 의견을 전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특정 사상가의 실제 만남을 그린 것은 아니예요.

## Q11 공자가 말한 인과 예는 그냥 착하고 예의 바르게 살라는 뜻인가요?

**답** 그보다 넓은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과 관계에 맞는 바른 행동으로 사회 질서를 세우자는 가르침이에요.

공자로 대표되는 유가는 인과 예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인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예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규범이에요. 규범은 사람들이 따르는 행동의 기준을 말해요.

공손하게 인사만 하고 상대를 함부로 대한다면 인과 예를 제대로 실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요.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뿐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헤아리고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 중요했어요.

이 가르침은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공자는 군주도 먼저 바르게 행동하고 백성을 아껴야 한다고 보았어요. 군주가 도덕적 모범을 보여 백성이 따르게 하는 정치를 덕치라고 해요.

## Q12 맹자의 ‘성선설’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답** 아니에요. 사람에게에는 선하게 살아갈 바탕이 있고, 그 마음을 잘 길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맹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 발전시킨 유가 사상가예요. 그는 사람이 본래 선한 마음의 바탕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보았어요. 이것을 **성선설**이라고 해요.

맹자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놀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예를 들었어요. 보상을 받으려고 계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위험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제대로 기르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맹자는 사람을 아끼는 **인**과 옳은 일을 따르는 **의**를 정치에서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군주가 힘으로 다른 나라를 누르는 것보다, 백성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어진 정치를 강조했어요. 이를 **왕도 정치**라고 해요.

## Q13 묵자의 겸애와 비공은 무슨 뜻인가요?

**답** 겸애는 자기편만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함께 아끼자는 것이고, 비공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묵가**를 대표하는 묵자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자기 나라의 이익만 앞세워 남에게 피해를 주면 다툼이 생긴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도 차별 없이 함께 아끼는 **겸애**를 주장했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남을 해치면서 자기편만 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생각은 **비공**으로 이어져요. 군주가 땅을 넓히려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군인뿐 아니라 농사짓고 살아가던 백성도 죽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요. 묵자는 이런 침략 전쟁을 비판했어요.

침략당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까지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묵가의 사람들은 방어를 돕기도 했어요. 또한 백성에게 부담을 주는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절약할 것을 강조했어요.

## Q14 도가의 무위자연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답** 아니에요. 지나친 욕심과 억지스러운 간섭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자는 뜻이에요.

**도가**는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사상이에요. 도가는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지나치게 쫓고, 세상을 자기 뜻대로 바꾸려다가 다툼과 고통을 만든다고 보았어요.

**무위자연**의 ‘무위’는 필요한 일까지 모두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꾸미거나 강제하는 행동을 줄이자는 뜻이에요. ‘자연’도 단순히 산과 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억지로 시키거나 꾸미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상태를 뜻해요.

예를 들어 군주가 더 큰 나라와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백성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도가는 그런 욕심과 간섭을 줄이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길을 강조했어요. 산속으로 들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가르침의 핵심을 놓치게 돼요.

#### **Q15** 법가는 백성을 벌주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나요?

**답** 아니에요. 분명한 법과 상벌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 군주의 권력과 나라의 힘을 키우려 했어요.

상앙과 한비 등으로 대표되는 **법가**는 도덕적인 마음에만 기대서는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지켜야 할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그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법치**를 중시했어요.

예를 들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면 공을 세우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정해진 의무를 어기면 벌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의무를 지키도록 만들 수 있죠. 법가는 이런 방법으로 농업과 군대를 강화하고 군주에게 힘을 모으려 했어요.

여기서 법치는 오늘날의 법치와 그대로 같지는 않아요. 오늘날에는 법으로 권력을 함부로 쓰는 일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해요. 당시 법가는 주로 군주가 백성과 관리를 통제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법을 강조했어요.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엄한 처벌과 통제는 백성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었어요.

#### **Q16** 유가와 법가는 모두 질서를 원했는데 무엇이 달랐나요?

**답** 유가는 도덕적 모범과 가르침을, 법가는 분명한 법과 상벌을 다스림의 중심에 놓았어요.

가령 관리가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 볼게요. 유가는 군주와 관리가 먼저 인과 예를 실천하고, 백성을 아끼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할 거예요. 법가는 관리의 의무를 분명히 정하고, 잘못된 관리에게 정해진 벌을 주는 제도를 강조할 거예요.

두 사상 모두 혼란을 줄이고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힘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유가가 모든 법과 처벌을 없애자고 했다는 뜻도, 법가가 상은 주지 않고 벌만 주자고 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무엇을 다스림의 중심으로 강조했는지가 다른 거예요.

## Q17 제자백가는 모두 부국강병만을 목표로 삼았나요?

**답** 아니에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뿐 아니라, 전쟁과 고통을 줄이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을 제시했어요.

법가처럼 부국강병에 힘을 보탠 사상도 있었어요. 하지만 묵가는 침략 전쟁을 반대했고, 도가는 군주가 지나친 욕심과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어요. 군주가 부국강병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침략 전쟁이나 지나친 간섭은 비판한 거예요.

| 학파 | 대표 사상가 | 강조한 생각과 해결 방법                                                |
|----|--------|--------------------------------------------------------------|
| 유가 | 공자·맹자  | 인과 예, 덕치(도덕적 모범으로 다스림), 성선설(선한 마음의 바탕), 왕도 정치(백성을 돌보는 어진 정치) |
| 묵가 | 묵자     | 겸애(차별 없이 함께 아낌), 비공(침략 전쟁 반대), 사치와 낭비 줄이기                    |
| 도가 | 노자·장자  | 무위자연(지나친 욕심과 억지스러운 간섭을 줄임)                                   |
| 법가 | 상앙·한비  | 법치(분명한 법과 상벌로 다스림), 군주 권력과 나라의 힘 강화                          |

같은 혼란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다르게 본 거예요. 제자백가의 다양한 생각은 이후 중국과 동아시아의 정치와 생활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어요.

## Q18 춘추 전국 시대는 어떻게 끝났나요?

**답**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다른 여섯 강국을 정복해 중국을 통일하면서 끝났어요.

나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농업과 군대를 강화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다스리는 제도를 바꾸었어요. 그 가운데 진나라는 상앙을 등용해 법가 사상에 따른 개혁을 했어요. 농사를 장려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었으며, 법을 어기면 엄하게 벌했어요. 이런 개혁은 곡식을 확보하고 군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진나라는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다른 여섯 강국을 차례로 정복했어요. 오랫동안 여러 나라가 경쟁하던 시대가 끝나고, 넓은 지역을 하나의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경쟁한 모든 나라가 똑같이 성공한 것은 아니며, 전쟁이 저절로 통일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다투는 과정에서 진나라가 힘을 키우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였어요. 진나라가 통일 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다음 단원에서 이어져요.

## 확인 문제

---

### 확인 01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춘추와 전국이라는 두 나라가 서로 번갈아 중국을 지배한 시기예요.
- ② 주 왕실의 힘이 약해진 뒤 여러 나라가 서로 경쟁하던 시기예요.
- ③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뒤 주 왕실이 다시 힘을 되찾은 시기예요.
- ④ 전국 시대가 먼저 지나고 춘추 시대가 뒤이어 시작되었던 시기예요.

### 확인 02

주나라 왕이 있는데도 제후들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넓힐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 ① 주 왕실이 지방의 모든 군대를 직접 이끌 만큼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 ② 제후들이 자기 지역의 땅과 군사를 모두 주 왕실에 넘겼기 때문이에요.
- ③ 주 왕실이 힘을 키워 제후들에게 서로 전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 ④ 제후들의 힘이 커지는 동안 주 왕실의 통제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 확인 03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이어진 변화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강국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 영토를 넓히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어요.
- ② 각 나라가 군대를 해산하고 주나라 왕이 이끄는 하나의 군대에 합류했어요.
- ③ 제후들이 스스로 왕이라 부르는 일을 멈추고 주나라 왕의 권한을 강화했어요.
- ④ 강한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정복하지 않기로 합의해 기존 영토를 유지했어요.

#### 확인 04

철제 무기와 전쟁의 확대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철제 무기가 나타나자 청동 무기는 곧바로 전쟁터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 ② 철제 무기를 쓰면서 보병은 줄어들고 전쟁은 귀족들만의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 ③ 무기의 변화와 함께 병사를 먹이고 동원하는 능력도 전쟁의 확대에 작용했어요.
- ④ 철제 무기만 갖추면 군대를 먹일 곡식과 물자를 따로 모을 필요가 없었어요.

#### 확인 05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소의 힘으로 쟁기를 끌어 땅을 가는 농사 방법을 ( \_\_\_\_\_ )이라고 해요. 나무 쟁기에 쇠  
날을 붙인 도구는 ( \_\_\_\_\_ )에 해당해요.

#### 확인 06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상업이 발달하기 쉬운 까닭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_\_\_\_\_

\_\_\_\_\_

#### 확인 07

부국강병을 추진하던 나라들의 모습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군주가 귀족에게 나라의 모든 결정을 맡기고 중앙의 힘을 줄였어요.
- ② 군주가 세금과 병사를 확보하고 자신이 임명한 관리의 역할을 키웠어요.
- ③ 군주가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 ④ 군주가 가문만 따져 관리를 뽑고 능력 있는 사람의 등용을 막았어요.

## 확인 08

이 시기의 인재 등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과거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을 수 있었어요.
- ② 신분과 가문의 영향이 사라져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 ③ 대대로 귀족인 집안 사람만 일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줄었어요.
- ④ 경쟁에 필요한 인재를 찾으면서 가문뿐 아니라 실제 능력도 중시했어요.

## 확인 09

다음 말에서 잘못된 두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제자백가는 정확히 100개의 학파를 뜻해요. 그 사상가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활동했어요.”

학파의 수

---

---

활동 시기

---

---

## 확인 10

군주들이 사상가와 인재의 조언을 구한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나라를 다스리고 경쟁과 혼란에 대응할 방법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 ② 사상가들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영토를 넓히자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 ③ 사상가들이 주나라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관리였기 때문이에요.
- ④ 나라 사이의 경쟁이 끝나 통치에 관한 고민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 확인 11

공자의 인·예와 덕치를 바르게 이해한 말은 무엇인가요?

- ① “인과 예는 백성에게만 필요하므로 군주는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않아도 돼요.”
- ② “예는 겉으로 인사하는 형식이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없어도 돼요.”
- ③ “군주도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바르게 행동하는 모범을 보여 나라를 다스려야 해요.”
- ④ “도덕에 기대어 다스리려면 사람 사이의 관계와 각자의 역할을 모두 없애야 해요.”

## 확인 12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사람은 본래 선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남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 ② 사람에게 선한 마음의 바탕이 있으므로 그 마음을 잘 길러 나가야 해요.
- ③ 사람은 벌을 두려워할 때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엾게 여길 수 있어요.
- ④ 사람마다 가문이 다르므로 높은 귀족만 선한 마음의 바탕을 지니고 있어요.

## 확인 13

목자의 겸애와 비공에 가장 가까운 생각은 무엇인가요?

- ① “자기 나라가 이익을 얻는다면 이웃 나라를 공격해도 괜찮아요.”
- ② “침략 전쟁을 반대하므로 공격받은 나라를 지키는 일도 안 돼요.”
- ③ “다른 사람을 함께 아끼려면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은 그만둬요.”
- ④ “남도 함께 아끼고, 영토를 넓히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요.”

## 확인 14

도가의 무위자연을 바르게 이해한 말은 무엇인가요?

- ① “지나친 욕심과 억지스러운 간섭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요.”
- ② “해야 할 일도 모두 그만두고 하루 종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 ③ “군주의 욕심대로 세상을 바꾸도록 백성의 생활에 더욱 간섭해야 해요.”
- ④ “사람들이 재물과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경쟁하도록 이끌어요.”

## 확인 15

법가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상을 주지 않고 벌만 주어 백성이 군주의 명령을 따르게 하려 했어요.
- ② 군주의 도덕적 모범만으로 다스리며 정해진 법과 상벌은 없애려 했어요.
- ③ 법과 상벌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 군주의 권력과 국력을 키우려 했어요.
- ④ 법으로 군주의 통치를 없애고 모든 백성이 똑같이 정치를 맡게 하려 했어요.

## 확인 16

시장에서 일부 상인이 저울을 속여 물건을 약속한 양보다 적게 주는 일이 생겼다고 해 볼게요.  
유가와 법가의 생각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세요.

유가 \_\_\_\_\_  
\_\_\_\_\_

법가 \_\_\_\_\_  
\_\_\_\_\_

## 확인 17

제자백가와 군주들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제자백가는 모두 군주의 정복 전쟁을 도우려는 같은 목표를 세웠어요.
- ② 제자백가는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와 관계없이 개인의 즐거움만 쫓았어요.
- ③ 제자백가는 군주들의 후원을 받으면 모두 같은 주장으로 생각을 바꾸었어요.
- ④ 군주들은 인재를 찾았지만 사상가의 주장은 군주의 뜻과 다를 수 있었어요.

## 확인 18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는 과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주 왕실이 다시 강해져 모든 제후국을 없애고 예전의 질서를 되찾았어요.
- ② 진나라가 힘을 키워 다른 여섯 강국을 정복하고 기원전 221년에 통일했어요.
- ③ 일곱 강국이 전쟁을 끝내고 각 나라의 왕이 번갈아 전체를 다스리기로 했어요.
- ④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권력을 버리고 제자백가에게 나라의 통치를 맡겼어요.

## 정답·해설

---

### 확인 01 정답 ②

주 왕실이 약해진 뒤 여러 나라가 경쟁한 시기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요. 앞의 춘추 시대와 뒤의 전국 시대로 나뉘어요.

- ① 춘추와 전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시대 이름이에요.
- ③ 진나라가 통일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났어요. 주 왕실이 다시 강해진 시기가 아니에요.
- ④ 춘추 시대가 먼저이고 전국 시대가 뒤예요.

▶ 다시 읽기: Q01

---

### 확인 02 정답 ④

제후들은 자기 지역에서 힘을 키웠지만 주 왕실은 그들을 통제할 힘이 약해졌어요. 왕이 있어도 명령을 실행할 힘이 부족하면 제후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막기 어려웠어요.

- ① 주 왕실이 지방의 모든 군대를 통제할 만큼 강해진 것이 아니라, 통제력이 약해졌어요.
- ② 제후들은 땅과 군사를 모두 넘기지 않고 자기 세력의 바탕으로 삼았어요.
- ③ 주 왕실이 강해져 전쟁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후들이 자기 이익을 앞세워 경쟁했어요.

▶ 다시 읽기: Q02

---

### 확인 03 정답 ①

전국 시대에는 강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 영토와 백성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어요.

- ② 각 나라의 군대가 주나라 왕 아래 하나로 합쳐진 것이 아니에요.
- ③ 강국의 군주들은 오히려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며 주 왕실로부터 더욱 독립적으로 행동했어요.
- ④ 강국들은 기존 영토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땅을 차지하려고 싸웠어요.

▶ 다시 읽기: Q03

---

#### 확인 04    정답 ③

전쟁의 확대에는 무기의 변화뿐 아니라 많은 병사를 동원하는 조직과 그들을 먹여 살릴 농업 생산력도 작용했어요.

- ① 철제 무기가 쓰인 뒤에도 청동 무기는 함께 사용되었어요.
- ② 많은 보병의 역할이 커졌어요. 귀족들만 싸우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 ④ 무기가 있어도 병사들이 먹을 곡식과 필요한 물자가 없으면 큰 군대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 다시 읽기: Q04

#### 확인 05    정답: 우경 / 철제 농기구

우경은 소의 힘으로 쟁기를 끌어 땅을 가는 방법이에요. 철제 농기구는 도구 전체가 쇠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몸체에 쇠 날을 붙인 쟁기도 포함돼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첫 빈칸에는 ‘우경’, 둘째 빈칸에는 ‘철제 농기구’를 쓰면 돼요. 둘째는 ‘철제 쟁기’라고 써도 돼요.

▶ 다시 읽기: Q05와 우경 삽화

#### 확인 06    예시 답

먹고 남는 곡식을 농기구나 옷감 같은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농민이 남는 곡식을 내놓으면 장인과 상인도 그것을 얻어 생활할 수 있어요. 농사 이외의 일을 하는 사람이 늘고,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남는 곡식과 다른 물건을 교환하거나 사고팔 수 있다는 뜻이 들어가면 돼요. ‘장인과 상인이 남는 곡식을 얻어 생활하며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서’라고 써도 돼요.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만 쓰면 상업으로 이어지는 까닭이 빠져요.

▶ 다시 읽기: Q06

## 확인 07    정답 ②

군주들은 세금과 병사를 확보하고, 자신이 임명한 관리를 통해 백성과 땅을 직접 다스리는 힘을 키우려 했어요. 이는 부국강병과 중앙 집권의 강화로 이어졌어요.

- ① 군주가 모든 결정을 귀족에게 넘기는 것은 중앙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과 달라요.
- ③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군대를 강하게 하려 했어요.
- ④ 가문만 따져 관리를 뽑기보다, 나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으려 했어요.

▶ 다시 읽기: Q07·Q08

## 확인 08    정답 ④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려면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문 외에 능력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커졌어요.

- ① 이 시기에 과거제로 관리를 뽑은 것은 아니에요.
- ② 신분과 가문의 영향이 남아 있었으므로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 ③ 가문만이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아 등용될 기회가 늘어났어요.

▶ 다시 읽기: Q08

## 확인 09    예시 답

**학파의 수** 정확히 100개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학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활동 시기** 모두 같은 시기에 활동한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시기에 활동한 사상가들도 있어요.

제자백가는 긴 춘추 전국 시대에 나타나고 발전한 여러 사상가와 학파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100은 정확한 개수가 아니라 많다는 뜻’과 ‘활동 시기가 모두 같지는 않다’가 각각 드러나면 돼요. ‘학파가 100개보다 많다’는 정확한 수를 단정하므로 뜻이 달라요.

▶ 다시 읽기: Q09

**확인 10**    **정답 ①**

군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고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릴 방법이 필요했어요. 사상가와 인재의 조언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 ② 사상가들의 생각은 서로 달랐고, 침략 전쟁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 ③ 사상가들은 주나라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관리 집단이 아니었어요.
- ④ 나라 사이의 경쟁과 혼란이 심했기 때문에 조언을 구했어요.

▶ 다시 읽기: Q09·Q10

---

**확인 11**    **정답 ③**

공자는 군주가 인과 예를 실천하고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았어요. 덕치는 그런 모범으로 백성이 따르게 하는 정치예요.

- ① 군주에게도 도덕적 책임을 요구했어요. 백성만 바르게 행동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예요.
- ② 예를 겉으로 하는 인사 형식만으로 좁혀 이해하면 안 돼요. 인을 바탕으로 관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 ④ 유가는 관계와 역할을 없애기보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질서를 중시했어요.

▶ 다시 읽기: Q11

---

**확인 12**    **정답 ②**

성선설은 사람에게 선한 마음의 바탕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맹자는 그 마음을 잘 길러야 한다고 보았어요.

- ① 선한 바탕이 있어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예요.
- ③ 맹자는 벌이나 보상을 계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어요.
- ④ 선한 마음의 바탕이 귀족에게만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예요.

▶ 다시 읽기: Q12

---

**확인 13**    **정답 ④**

겸애는 자기편만 이롭게 하려고 남을 해치지 말고 남도 함께 아끼자는 가르침이에요. 비공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 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에 피해를 주는 침략은 목자가 비판한 행동이에요.
- ② 침략당한 나라를 지키는 방어까지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 ③ 자기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도 함께 아끼자는 뜻이에요.

▶ 다시 읽기: Q13

---

**확인 14**    **정답 ①**

무위자연은 지나친 욕심과 억지로 강제하는 행동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자는 생각이에요.

- ② 필요한 일까지 모두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 ③ 군주의 욕심과 과도한 간섭은 도가가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 ④ 재물과 권력을 지나치게 쫓는 경쟁은 다툼과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어요.

▶ 다시 읽기: Q14

---

**확인 15**    **정답 ③**

법가는 법과 상벌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고, 농업과 군대를 강화해 군주와 나라의 힘을 키우려 했어요.

- ① 벌뿐 아니라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상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 ② 도덕적 모범만으로는 다스리기 어렵다고 보고 법과 상벌을 강조했어요.
- ④ 군주의 통치를 없애려는 사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어요.

▶ 다시 읽기: Q15

---

## 확인 16 예시 답

**유가** 군주와 관리가 정직하게 거래하는 모범을 보이고, 상인들에게 남을 속이지 말고 바르게 거래하도록 가르쳐요.

**법가** 물건의 양을 재고 거래하는 규칙을 분명히 정하고, 저울을 속인 사람에게 정해진 벌을 주어요.

유가는 모범과 가르침으로 상인들이 스스로 바르게 거래하도록 이끄는 데, 법가는 정해진 규칙과 그에 따른 처벌로 속임수를 막는 데 무게를 두어요. 법가는 상도 중시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규칙을 어긴 행위에 대한 벌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유가는 정직한 거래의 모범이나 남을 속이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을, 법가는 거래 규칙을 정하고 저울을 속인 행위를 처벌하는 방법을 쓰면 돼요. ‘덕치’, ‘법과 상벌’이라는 말만 옮기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드러나야 해요.

▶ 다시 읽기: Q11·Q15·Q16

## 확인 17 정답 ④

군주는 부국강병에 도움이 될 인재를 찾았지만, 사사가 중에는 침략 전쟁이나 군주의 지나친 욕심을 비판한 사람도 있었어요.

- ① 묵가처럼 침략 전쟁에 반대한 사사도 있었어요. 모두 정복 전쟁을 돕자는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니에요.
- ②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사회의 혼란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한 사사가들이 있었어요. 개인의 즐거움만 좇았다는 설명은 맞지 않아요.
- ③ 후원을 구하거나 받아도 사사가들의 주장이 하나로 같아진 것은 아니에요.

▶ 다시 읽기: Q10·Q17

## 확인 18 정답 ②

진나라는 개혁으로 국력을 키우고 다른 여섯 강국을 차례로 정복했어요.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났어요.

- ① 주 왕실이 힘을 되찾아 통일한 것이 아니에요.
- ③ 일곱 강국이 번갈아 다스리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진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 ④ 군주들이 제자백가에게 통치를 맡겨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 다시 읽기: Q18